

19세기 북카프카스의 평화와 공존에 관한 연구 : 쿤타 하지의 삶과 이슬람 이념을 중심으로*

정 세 진**

I. 서론

19세기 러시아는 제국의 기치를 내걸고 러시아 남부로 급격한 세력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는 남부의 북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치에 성공하지 못했다. 1816년 예르몰로프(А.П.Ермолов) 장군이 북카프카스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복 계획을 입안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카프카스의 다양한 소수민족들도 전쟁을 불사하였다. ‘카프카스 전쟁’(1816-1865)이 발생했다. 이는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다.

제정러시아의 정복 야욕에 강력히 대처했던 세력은 무슬림 지도자들이었다. 특히 카프카스 전쟁 시기 1대 이맘인 가지 무하마드(Гази Мухаммад, 1794-1832), 2대 이맘 함자트 벅(Хамзат-Бек, 1789-1834), 그리고 3대 이맘인 샤밀(Шамиль, 1797-1871)이 저항의 핵심 세력이었다. 특히 가지 무하마드와 샤밀은 러시아에 대해 지하드를 선포하고 군사적 저항을 감행했다. 이맘 샤밀은 독특한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는 군사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종교권을 장악하면서 러시아에 대항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8S1A6A3A02024971).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부교수

이맘의 위치로서 샤밀은 종교적 영역 뿐 만이 아니라 세속적 영역까지 망라해서 강력한 내부 통치를 전개하고 있었다. 샤밀은 이슬람 정신을 활용, 러시아에 군사력으로 맞섰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샤밀의 저항 정신과는 다른 인물인 셰이흐¹(Шейх, Sheikh) ‘쿤타-하지 키쉬에프’(Kunta-khadzhi Kishiev; Кунта-Хаджи Кишиев, 1830-1867) (이하 ‘쿤타 하지’로 표기)라는 이슬람 지도자가 있었다. 카프카스 전쟁이 진행되던 와중에 쿤타 하지는 이슬람 수피즘 종단인 ‘카디리야’(Qadiriya, Кадирийя) 종단의 지도자였다. 그는 카프카스 거주민들에게 대 러시아 군사 저항에 나서지 말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 러시아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쿤타 하지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슬림은 신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신이 제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러시아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러시아에 화해의 정신으로 나가야하며,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슬림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쿤타 하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수피즘의 올바른 길이라고 설교하였다.

본 논고는 19세기 중반기 쿤타 하지의 삶을 통해 북카프카스의 평화와 공존의 함의를 규명하는 시도이다. 샤밀의 저항 정신과는 이질적인 쿤타 하지의 이슬람 정신과 그의 활동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은 19세기 북카프카스 지역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와 북카프카스의 군사적 상황, 국제관계,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쿤타 하지의 삶과 그의 수피즘 이념이 당시 북카프카스 민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북카프카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카프카스 전쟁이나 20세기 체

¹ 이슬람 스승을 일컫는 용어이다. 셰이흐는 제자들을 영적, 정신적, 생활적인 부분까지 인도하고 제자들이 절대자를 향한 구도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의무를 가진다.

첸 전쟁에 관련된 정치적 분쟁,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본 논고는 국내에서 연구가 전혀 되지 않은 쿤타 하지의 삶을 통해 저항적 이념이 아닌 평화와 순수한 이슬람 정신이 어떤 의미를 담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고는 2장에서 저항정신과 진리의 구도로서의 수피즘의 양면성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쿤타 하지와 카디리야 종단의 이슬람 정신과 평화의 가치를, 4장에서는 쿤타 하지의 활동과 친러시아 담론을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쿤타 하지의 수피 교의의 확산과 그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II. 저항정신과 진리의 구도로서의 수피즘의 양면성

1. 러시아 제국의 확장과 이슬람 낙쉬반디야 수피즘 종단의 저항적 인식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을 규명하기 이전에 먼저 북카프카스 지역에 나타난 이슬람 종파인 수피즘의 일반적인 경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피즘은 ‘낙쉬반디야’ (Накшбандия)종단과 ‘카디리야’ 종단이 주요 2대 종파이다. 수피들은 신앙적으로 완전성을 향하여 성장하며, 영적 인식을 개발하기 위해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무엇보다도 신비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² 수피들의 특징은 금욕주의이다. 수피들은 자신을 정화하면서 삶을 매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신에 대해 이상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욕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신의 인도에 따라 순명의 삶을 실천하며 그 삶을 추구

² Fereshteh Ahmadi Lewin, "Development Towards Wisdom and Maturity: Sufi Conception of Self,"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Vol. 5, No. 3, 2000, p. 137.

한다. 이들에게 ‘신과의 합일’은 매우 중요하다.³ 수피즘을 신봉하는 수피⁴들은 세계를 매우 직관적인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인식론적 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즉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는 수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고자 한다.⁵

19세기 북카프카스 에서 수피즘은 신비주의적, 금욕적, 신을 향한 진리로서의 구도자적 자세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수피즘은 저항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며, 수피들은 단순히 신을 향한 구도자적 진리의 길 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즉 수피즘은 신을 향한 무슬림의 믿음과 순수한 신비주의적 경향과 경건하고 신에게로 귀의하는 신앙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 러시아제국의 침략에 저항하여 군사적 방어를 펼침으로써 전혀 다른 이념적 특성을 보였다. 당시 수피즘은 평등의 철학이 강조되면서, 외부 점령자에 대항하는 동력으로 기능했다.

수피즘은 세이흐-무리드(Murid; 제자)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자가 스승에 절대 복종하는 체계이다. 이런 이유로, 1816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북카프카스 민족 간의 카프카스 전쟁 때에 무리드는 스승인 절대 권력자인 이맘의 의견에 충실히 복종하고 성전(聖戰)이라는 고귀한 이상에 자신을 희생하였다. 러시아에 저항한 북카프카스 무슬림을 가리키던 용어가 ‘무리디즘(Muridism, Мюридизм)’이었다.⁶ 무리드는 절대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는 스승인 수피를 따라가는 제자이다. 러시아인은 이 용어에서 나온 ‘무리디즘’을 이맘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투쟁하는 산악 소수 민족들의 저항 운동으로 해석하였다.⁷

³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수피즘(sufism)의 본질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20호 (2000), 277쪽.

⁴ 수피(sufi)들은 수피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다. 원래 수프(suf)의 의미는 아주 빈한한 양모를 의미한다. 즉 양모로 지은 옷을 입은 무리를 수피스트들이라고 불렀다.

⁵ 정세진, “북카프카스 수피즘 연구 - 신비주의 관념과 반러시아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9권 1집 (2009), 5-6쪽.

⁶ Moshe Gammer, *Muslim resistance to the tsar: Shamil and the conquest of Chechnia and Daghestan* (London: Frank Cass, 1994), p. 44-45.

북카프카스 수피즘은 19세기에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였다. 낙쉬만디아 종단이 가장 광범위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처음에는 이 종단도 신비주의와 진리로서의 수피즘의 일반적인 경향을 추구하였지만, 제국의 침략에 맞서 이슬람을 항거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슬람은 종교였지만, 정치적 도구로 발전하였다. 거주민들은 이맘을 중심으로 단일한 전선을 펼치고자 하였다. 북카프카스에는 다양한 소수 민족 그룹이 거주하고 있었다. 체첸과 다게스탄 민족 그룹의 거주지에는 산악 지대가 많았다. 체첸에는 거의 단일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다게스탄에는 산악 지대가 많아 다양한 소수 민족이 균거를 이루고 있었다. 북카프카스에는 아다트(Адат, Adat)가 통치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는데, 아다트는 비법률적 관습법이고, 일반 생활을 규정하는 법률적 시스템이었다.⁸ 다게스탄을 비롯한 산악 지대는 이슬람이 정착되기 이전에 관습법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다. 아다트는 사회의 공동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 사회는 동일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주요한 행동을 형성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통합으로 구성되었다.⁹ 이는 북카프카스 사회에도 동일한데, 산악으로 구성되어 공동체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률적, 비법률적 관습법이 사회 유지에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아다트 통치보다는 수피즘이 강력히 전파되었으며, 소수 민족들은 그 정신으로 투쟁의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낙쉬만디아 종단의 수피즘 이념에는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신조가 있었다. 수피즘 이론의 한 축에는 이슬람 정신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이런 신조가 지하드 정신으로 연결되었다.¹⁰ 사회적 불의에 피동적인 자세로 있어서는 아니

⁷ Н.И. Покровский, *Кавказские войны и имамат Шамиля*. Москва : Росспэн, 2009, С. 243-244.

⁸ Ш.М.Казиев, И.В.Карпее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3, С. 142-143.

⁹ Лия Меликишвили, *Открытые и закрытые типы культур этнических систем//Адат.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билиси-Москва, 2003, С. 18

¹⁰ Anna Zelkina, "Jihad in the name of God: Shaykh Shamil as the religious leader of

된다는 낙쉬반디야 종단의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이슬람은 전통적인 종교적 서열 및 기득권을 반대하는 문화적 요소였다. 이 그룹은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지하드를 선포하였다. 이들은 소위 ‘나이브 무리드’(Наиб Мюрид)라고 불렸다.¹¹ 낙쉬반디야 종단을 이끌면서 제자들을 저항의 길로 이끈 샤밀은 전격적으로 신정국가를 창설하였다. 샤밀은 이탈리아의 가리발디와 함께 19세기 2명의 대표적인 게릴라 지도자로 서구사회에 알려져 있다. 샤밀의 삶과 투쟁은 서구 사회에 회자되었다.¹² 체첸 인이 무리드의 핵심 전력을 구성했으며, 무리드는 샤밀 군대의 핵심 엘리트였다.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샤밀은 장기간 러시아에 투쟁할 수 없었을 것이다.¹³

러시아는 1783년 예카테리나 여제시기에 크림 칸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이후 북카프카스로 진출하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지만,¹⁴ 이제 상황이 급변하였다. 북카프카스 무슬림 교도들이 러시아에 맞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전쟁이 소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교도에 저항하는 정신이 이슬람의 최상의 가치라고 믿었다. 물론, 수피즘 교의 자체가 이슬람 정신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라브 인이 자신들의 땅으로 정복의 꿈, 정복의 이상을 가지고 침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부족 간, 씨족 간 경쟁하며 살아가던 거주민들도 투쟁의 조준점을 제정러시아에 맞추었던 것이다.

the Caucasus” *Central Asian Survey*, Vol. 21, No. 3, 2002, pp. 256-257.

¹¹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ред. А.И.Миллер) Москва :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С. 120-121.

¹² Robert Seely, *Russo-Chechen conflict 1800-2000. A deadly embrace* (London, Portland: Frank Cass, 2001), p. 40.

¹³ Bülent Gökay, “Russia and Chechnia: A Long History of Conflict, Resistance and Oppression,” *Alternatives :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2&3, 2004, p. 5.

¹⁴ Shreen T. Hunter, *Islam in Russia.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ecurity* (Armonk, New York, London : M. E. Sharpe, 2004), p. 11.

2. 신비주의와 경건으로서의 카디리야 종단 : 반 투쟁적 신앙과 인식

이에 반해 카디리야 수피즘은 수피즘의 원칙들인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그리고 절대자인 신에게로 향하는 신앙적 인식과 명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피즘이 카프카스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1800년대 초기에는 카디리야 종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낙쉬반디야 종단의 무리드와 무슬림들은 종교적 명상보다는 전투적 투쟁에 경도되기 시작되었으며, 이슬람 정신으로 단결하였다. 샤밀은 1834년 카프카스 전쟁 시기 제 3대 이맘의 위치에 올랐을 때 카디리야 종단의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했다. 그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이슬람을 활용하였다. 샤밀은 북카프카스 민족을 이슬람이라는 단일한 정신적 가치 아래 두어야 한다는 의식을 강력히 가지고 있었다. 항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단결된 이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카디리야 종단은 지하드에 참여하지 않았다.¹⁵

특히 카디리야 종단의 지도자인 쿤타 하지가 대 러시아 투쟁을 선언하지 않고, 공존과 평화라는 친러시아 담론을 펼치자, 샤밀은 쿤타 하지와 카디리야 종단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샤밀 자신만이 예배, 설교, 그리고 무슬림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관한 유일한 이슬람 이론가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¹⁶ 샤밀은 쿤타 하지와 그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쿤타 하지가 순응적이며, 저항도 하지 않고, 군사적 투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샤밀은 쿤타 하지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방도를 찾고 있다고 간주했다.¹⁷ 즉 샤밀은 쿤타

¹⁵ Lesley Blanch, *The Sabres of Paradise: Conquest and Vengeance in the Caucasus* (London : TPP, 2009), pp. 60-62.

¹⁶ Алексей Малашенко, *Ислам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Гендальф 2001. С. 31.

¹⁷ 현시대에도 체첸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친 러시아 경향을 가진 체첸 인들은 체첸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러시아와의 전투를 자

하지와 카디리야 종단은 신정국가 건설에도 크게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가족이나 친족들의 삶을 보호하는 행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밀은 쿤타 하지가 매우 이기적인 무슬림이며, 그를 따르는 무슬림들도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¹⁸ 샤밀은 이맘의 권위로 카디리야 종단의 예배를 금지시키고자 했다.

낙쉬반디야 종단은 신을 향한 교의와 믿음을 강조하던 카디리야 종단과 달리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쿤타 하지는 진리의 길, 신에게로 향하는 타리카¹⁹ 신앙의 영원성, 영적 구원을 추구했다.²⁰ 쿤타 하지의 종교적 가르침은 군사적 저항을 펼치던 무리드 세력을 제어하기는 어려웠다. 샤밀 추종자들이 광범위한 세력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은 군사적 저항주의자들이었다. 샤밀과 낙쉬반디야 종단 지도자들은 러시아제국의 확장을 단호히 거부하였다.²¹

Ⅲ. 쿤타 하지와 카디리야 종단의 이슬람 정신과 평화의 가치

1. 스승인 셰이흐와 제자인 무리드의 역할

3장에서는 쿤타 하지와 카디리야 종단의 이슬람 정신과 평화의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카디리야 종단은 ‘타리카’의 순

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국가 독립을 획득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¹⁸ Алексей Малащенко, *Ислам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С. 31.

¹⁹ 러시아어로 Тарика로 표기된다. 타리카는 진리를 향한 구도자적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타리카는 신을 향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이다.

²⁰ Александр Ляховский, *Зачарованные свободой тайны кавказских войн. Информация. Анализ. Выводы*. Москва : Детективпресс, 2006, С. 95-97.

²¹ Л.А.Баширов,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Вопросы научного атеизма*. В ып. 39. 1989. С. 49.

수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신에게 절대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 어떤 세속적 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종교적 헌신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²² “이슬람은 평화의 교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종단의 가입식은 아주 단순하다. 쿤타 하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라에 선택된 자로서의 성스러운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 보며, 그가 매일 5번의 기도를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샤하다'²³ (shahada)를 100번 계속 외우게 한다. 그리고 입회자의 알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알라와 세이흐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입회식 행사를 마친다.

카디리야 종단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노래와 춤이 동반되었다. 수피즘에 있어 전형적인 지크르(Зикр, Zikr) 의식인데, 큰 소리로 신을 찬미하는 외침이었다. 종단 참여자들에게 매우 주요한 의식은 높은 목소리로 지크르를 외치는 일이다. 지크르 의식은 자신과 사회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하는 행위였다. 지크르를 통해 신 앞에서의 의무, 도덕적인 삶과 행위, 이슬람의 모든 계명 등을 성실히 준수하자는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 쿤타 하지는 지크르는 타리카 교의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예배 의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크르를 수행한 이후에 기도문을 낭독하였다. 쿤타 하지는 명절 때 성지와 성묘 등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때에는 지크르 의례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크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며,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이는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함이다.²⁴ 지크르는 신을 찬양하면서 원을 지어 춤을 추고 높은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행위이며, 러

²² 수피즘에는 두 가지 사상적 경향, 신비주의-금욕주의 경향과 정치적 경향이 있다. 신비주의 경향으로서의 수피즘은 진리추구의 자기완성과 무슬림 움마(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의 평등을 추구한다. 현실의 세계와 싸우지 말고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에 몰두하며, 러시아제국의 군사적 공격에도 맞서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²³ 샤하다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사도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²⁴ Халид,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секты толка "кадирия" или "зикристы" //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ц 1930. No. 9-10. С. 49.

시아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화해와 겸양의 행동으로 수용되었다.²⁵

처음에 이 춤은 몸을 느리게 움직이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빠른 움직임으로 원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원형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로 찬양을 한다. 지크르는 천사들을 매개체로 하여 알라와의 직접적인 교통을 이루는 행위이다. 이 행위의 목적은 자신과 사회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정화한다는 의미로 수용되었다. 이들은 신비적이고 금욕적인 수피즘의 원칙을 따르면서, 무슬림은 신과의 합일, ‘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타리카 교의에 몰두하였다. 찬양의 주제는 다양하다. 위대한 성인이 행한 여러 가지 사건, 일반적 무슬림에 관한 주제들, 신을 향한 찬양, 쿤타 하지를 향한 칭송, 그리고 정의로운 칼리프였던 알리에 대한 찬양 등이다. 찬양 의식의 목적은 변화하는 세계와 자연을 기억하면서, 신 앞에서의 의무, 도덕적인 삶과 행위 등을 신자들에게 요청하는 일, 그리고 이슬람의 모든 계명 등을 성실히 준수하자는 희망을 표현하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직성을 추구하였다.

그렇다면 스승인 세이흐와 제자인 무리드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 이를 통해 평화의 가치가 어떤 함의를 주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체첸 이슬람 학자인 아카예프가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수피즘의 원칙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²⁶ 카프카스에 수피즘을 널리 퍼뜨린 자말-에딘(Джамал-Эдин)은 세이흐와 무리드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제자는 정신적인 완전성에 도달하고 신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스승을 모셔야 하며, 스승을 매개체로 하여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전까지는 스승을 자신의 마음에서 보내지 말아야 한다.²⁷ 스승은 매우 풍부한 영감의 원천

²⁵ Galina M. Yemelianova, *Russia and Islam. A Historical Survey* (New York : Palgrave, 2002), p. 54.

²⁶ В.Х.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НИИГНЧР, 1994.

을 소유한 자이며 제자의 심장에 영적 원칙과 감동을 전해주는 존재이다. 그는 제자들이 영혼의 안식, 영혼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셰이흐는 매우 강력한 영적 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신을 추종하는 일반인들과는 공통성이 많지 않다. 쿤타 하지는 이슬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제자인 무리드를 중심으로 6가지로 상정하고 있다.

첫째, 셰이흐와 무리드의 절대적이고 매우 강력히 결합된 관계이다.

둘째, 무리드의 마음은 종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삶의 범주 내에서 무리드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쓰라린 죄악을 범하게 된다.

넷째, 무리드는 사람들과의 정당한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무리드는 형제와 무슬림을 향한 악담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무리드가 있는 면전에서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무리드는 즉시 비방을 논박해야 한다.

여섯째, 무리드는 자신의 셰이흐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셰이흐를 스승으로 정할 의무를 가진다.

쿤타 하지에게 셰이흐는 무리드와 신의 사이에 있는 중개자이며, 신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존재이다. 셰이흐는 러시아와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수용되었다. 무리드가 신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은 코란과 순나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며, 셰이흐의 영적 권위의 길을 준수하며 따라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위배하고 오도된 신앙의 길을 따라가거나 잘못된 가치에 귀를 기울이는 무리드는 질책을 받아야한다. 그래서 비도적인 행위를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무리드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²⁷ Адабуль-Марзия. *Правила достойных приличий. сочинение шейха Джамалутдина казимумухского Сборник сведений о кавказских горцах (ССКГ)*. Вып. II. Тифлис, 1869, С. 42-43.

가르침이다.

무리드가 모든 이에게 무관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만족한다면, 그는 도덕적인 완성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관점이었다. 무슬림은 신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최고의 정신적인 고양함에 이를 수 있다. 만약에 제자인 무리드가 신, 선지자, 그리고 셰이흐의 길에 가깝게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적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신에 대한 경외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충만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신, 선지자, 셰이흐로부터 멀어진다.²⁸ 무리드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대한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자신보다 더 고상하고 신적인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며, 심지어는 아름답지 못한 행실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쿤타 하지는 진정한 무리드는 다른 이들의 악에 대해 용서를 해주는 무슬림으로 정의하며, 이런 태도를 가진 무리드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라의 이름을 기억하며, 악담을 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이다. 그러한 무리드가 진정한 신의 종이 될 수 있다. 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평화의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이며, 평화에 대한 인식은 셰이흐의 매우 중요한 영적 가치였다.²⁹

쿤타 하지는 수피즘의 위대한 이론가인 아무-하미드 알-가잘리의 전언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는 알-가잘리의 관점을 명확히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그들이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

²⁸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С. 52.

²⁹ 쿤타 하지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싶은데,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 머리 수건을 묶고, 자신의 결함과 죄로부터 깨끗이 하고, 그 이후에 머리를 묶으라는 충고를 하였다. 제자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가르침이었다.

³⁰ Ал-Газали А.Х.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0, С. 108.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욕심과 멸시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자는 스승처럼 고양된 진리의 길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무리드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무슬림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제자는 영적인 탁월함을 소유하면서 무엇보다도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진실한 무리드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2. 쿤타 하지의 정치적 경향 : 화해와 공존의 가치

쿤타 하지는 이미 존재하던 기존의 정치적 질서에 반대하였다. 그는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 앞에서 모든 무슬림은 평등하다는 점을 주창하였다. 선지자는 샤리아(Sharia)의 원칙을 설파해왔으며, 믿음의 길인 타리카를 가르쳐왔다. 샤리아와 타리카는 무슬림 행위의 기본이다.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읽는 것도, 글 쓰는 것도 하지 못했다. 쿤타 하지에 따르면, 알라는 원하는 이에게 지혜를 주었으며, 알라가 의도하는 대로 그 지혜를 허락해왔다. 그러므로 이슬람 선생인 물라(mullah)가 반드시 코란이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독점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 쿤타 하지의 입장이다.³¹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하면서 쿤타 하지는 알라와 대면할 때에 반드시 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피들은 간접적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다. 타리카를 가르치는 세이흐는 샤리아를 통해 신에게로 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수피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가? 쿤타 하지는 무엇보다도 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신을 향한 사랑으로써 이루어진다. 절대

³¹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С. 53-54.

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압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알라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신적 인식이 어떠한 기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 그 매개체는 진심어린 사랑을 통해 형성되는 신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수피들을 위한 인식의 과정은 상상적이고 신비한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신은 직감의 상상력에 의해 현현된다. 신에 대한 인식은 성스러운 의식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쿤타 하지는 만약에 인식의 매개체가 선지자 무함마드의 순나에 의존하면서도 알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성스럽게 될 수 없다고 간주했다. 그는 신에 대한 인식의 이성적인 기능을 직관적이고 신비적인 것과 연결하여 파악했다. 누군가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한다면, 그는 타리카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슬람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서로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이다. 왜냐하면 세이흐 자신은 세상의 가치에 초연해왔기 때문이다. 한 조각의 땅을 가지는 것보다 황금을 가진다고 더 기뻐해서는 안 된다. 황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도 땅 한 조각을 상실한 것보다 더 많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쿤타 하지는 알 가잘리(al-Ghazali, 1058~1111)³²의 금욕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해서는 안 되며, 상실한 것으로 인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자신을 비난하든, 아침을 하든지 그 어느 쪽에도 무관심해야 하는 경지가 금욕의 경지이다. 금욕의 첫째 징후는 재산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둘째, 안락함을 거부하는 것, 셋째, 알라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알라와의 일체감이다. 금욕의 마음에서 세상으로의 집착에 하나의 발을 걸쳐놓고, 그 발을 알라와의 일체감에 놓아둔다면, 그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다.³³ 알 가잘리는 “순간적으로 당신

³² 성과 이름은 “아부 하미드 무함마드 이븐 무함마드 알가잘리”이다. 무함마드 이후 가장 위대한 무슬림이며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철학과 수피즘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이슬람 신비주의자이다.

조차도 지나가는 이 세상에 대해 당신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당신을 찾아왔던 것에 기뻐하지 않기 위해 알라는 모든 거만한 자들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다.³⁴

순수하고 일반적인 무슬림에게는 쿤타 하지의 설교 자체가 수니파 종단 지도자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쿤타 하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의 설교 자체가 대중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낙쉬반디야 수피 종단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쿤타 하지를 반대하고 그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기를 원했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의 참혹성과 잔인성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가졌다. 러시아와의 전쟁 행위는 신에 대한 적대적인 일로 여겼으며, 무엇보다도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 거룩한 심성, 형제의 도움, 삶의 평화스러운 원칙 등이라고 강조했다. 지크르 행위는 무슬림 세계에 있어서 반 지하드 분위기를 주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졌다. 샤밀은 지크르 행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폴리토프는 샤밀은 카디리야 종단에서 주장하는 타리카 교의를 아주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쿤타 하지를 폄박하였다고 기록하였다.³⁵

결론적으로 쿤타 하지의 입장에서 이러한 신적인 인식은 제정러시아와 관련해서 매우 연관성이 깊다. 즉 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공동체성의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쿤타 하지의 가르침이 사회의 핵심 가치와 어떻게 부합하고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가르침의 핵심 목표는 완전한 사회적 순응성이었다. 그는 민중들에게 현재 존재하는 질서와의 투쟁보다는 그것과의 화해를 촉구했다. 즉 제정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먼저 촉구했던 것이다. 그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다.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의 이념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이

³³ Ал-Газали,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С. 201.

³⁴ Ахмадов Ш.Б. *Имам Мансур*. Грозный: Книга, 1991, С. 74.

³⁵ А.П. Ипполитов, *Учение зикр и его последователи в Чечне и Аргунском округе*. ССКГ. - Вып. II. Раздел 2. Тифлис, 1869. С. 2.

익을 대변한다는 것.

화해는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했다. 그의 가르침은 초창기 칼리프 이슬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개념을 무슬림의 삶에 재현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수용했다. 그는 신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셰이흐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수피즘 사상에도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신적인 가르침은 존재했다. 그러나 쿤타 하지에게 그 정신은 신을 향해 가는 전형적인 믿음의 길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III. 쿤타 하지의 활동과 친러시아 담론

1. 카프카스 전쟁 시기 쿤타 하지의 활동과 평화의 메시지

쿤타 하지는 이슬람 정통 칼리프 시기의 이슬람의 기본 원칙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³⁶ 그는 10대 때에 하지를 행했고 수피즘을 받아들였다. 카디리야 종단의 3명의 셰이흐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³⁷ 쿤타 하지는 영적 스승인 자말 에딘 으로부터도 배웠다. 자말 에딘은 북 카프카스 수피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쿤타 하지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항해 항전을 선포했던 가지 무하마드, 샤밀 에게도 수피즘 교의를 전파하고 교육시킨 스승이다. 자말 에딘은 러시아에 저항하는 사회적 메시지로서의 수피즘 교의 보다는 진리추구와 자기완성으로서의 수피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고, 쿤타 하지도 이러한 입장을 추종하였다. 쿤타 하지는 신앙 교육을 받은 직후에 타리카 교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단 활동을 시작했다.

³⁶ M. Агларов, *Андийцы*. Махачкала. 2002. С. 120.

³⁷ А.К.Аликберов, *Эпоха классического ислама на Кавказе*. Москва :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03. С. 686.

쿤타 하지는 카디리야 종단 지부를 세웠다. 체첸, 잉구세티아, 서 다게스탄 지역에서 조직한 종단 세력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 쿤타 하지는 1847년 5월에 수피즘을 포교하기 위해 잉구세티아로 갔다. 스타니차 아시노프스카야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잉기쉬 민족에 수피즘을 전파하면서, 카디리야 종단 세력을 확장하였다. 쿤타 하지는 그해 7월 11일에 산에서 매우 경건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산정의 기도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3일 낮밤을 기도로 보냈는데, 현재 이 장소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 동시에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³⁸ 그는 잉구세티아 이외에도 다게스탄과 체첸에서 활동하였다. 쿤타 하지는 다게스탄의 쿠믹계 출신이라 다게스탄에서 주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체첸에서 포교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제국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모든 이들이 성전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쿤타 하지는 지하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를 거부했다. 체첸의 많은 무슬림들도 명상적인 카디리야 종단의 타리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쿤타 하지는 사회적 수동성과 영적인 자기완성을 주창하였다.³⁹ 그의 가르침에는 이슬람의 가장 큰 종파인 순니 종단이 아닌 쉬아 종단의 가르침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쉬아 종파를 탄생시킨 칼리프인 알리에 대한 회상을 설교와 이슬람 신앙 교육 도중에 빈번히 인용하였다.

쿤타 하지가 추구한 수피즘은 절대 진리와 신에게로의 귀의를 목표로, 현존 질서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의 지배를 현실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평화롭고 순수한 종교적 믿음을 설교하고 화해로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샤밀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쿤타 하지의 입장은 명료했다. 카프카스 전쟁을 치르면서 북카프카스 민족은 많은 희생을 겪었다. 특히 1850년대 들어 러시아는

³⁸ Julietta Meskhidze,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Central Asian Survey*, Vol. 25, No. 1-2, 2006, p. 181.

³⁹ Robert W. Schaefer,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bat to Jihad* (Santa Barbara, Denver, Oxford : Praeger, 2011), pp. 69-71.

강력한 군사력을 행사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무슬림의 저항은 약화되었다.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민중들도 늘어났다. 일부 지도자들은 전쟁 종식 이후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은 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모든 무슬림 교도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형제들과 더불어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슬람은 저항의 교의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무슬림 교도는 신과의 합일, 신에 대한 복종, 그리고 예배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⁴⁰ 일반 무슬림 교도들은 그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고, 그가 추구한 삶을 따르고자 하였다. 민중들은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애썼다. 그의 설교를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설교는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아주 먼 마을에서도 그의 명성이 알려졌다.

쿤타 하지는 매우 검소하게 살았으며, 수피들처럼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다. 쿤타 하지의 권위는 이슬람 선생, 즉 무라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무슬림으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은 경향이 있었다. 그의 종교적 신비주의는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 어떤 종교적 능력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⁴¹ 그의 가르침은 체첸을 포함한 북카프카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체첸보다도 훨씬 러시아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약한 잉기쉬 민족에게 그 사상은 매우 강력히 스며들었다. 그는 무슬림이라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타리카’ 교의를 통해 잉기쉬 민족이 샤리아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많은 거주민들이 무슬림이 되었다. 잉기쉬 민족은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지하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순수한 이슬람 자체를 추구하던 쿤타 하지의 신앙에 감복하였다.⁴² 샤리아 자체를 순수하게 따르

⁴⁰ А. Авксентьев,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таврополь, 1984, С. 132.

⁴¹ Там же. С. 132.

⁴² А.А. Саламов, *Правда о святых местах 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и. Сб. статей Чечено-Ингушского НИИ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ЧИ АССР*. Грозный, 1964. С. 161.

고자 하였다. 샤리아는 이슬람 법률 체계이며, 무슬림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며, 삶의 법률이다.⁴³

쿤타 하지는 이슬람 이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는 무슬림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敵意)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무슬림 물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 러시아 군사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는 도덕적-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전쟁의 전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에게 순종의 이념은 상호 존중과 상호 원조이다. 쿤타 하지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불행한 민중들을 돕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 본질의 우선이라고 간주했다. 즉 민중들의 운명은 신에게 의탁되어야 하며, 러시아인들로부터 받은 불행과 고통도 어루만져주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⁴⁴

만약에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벌을 받을 것이다. 현실은 모든 것이고, 현실의 삶은 부패하는 것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하나의 삶이 지나가지만, 미래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신에게 기도해야 한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쿤타 하지는 메카에서 돌아 온 직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다.⁴⁵

형제들이여, 짜르의 권력은 우리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강력히 강화되고 있다. 나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술탄이 러시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희망

⁴³ 샤리아는 무슬림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샤리아의 첫 번째의 근간은 코란이다. 하디스와 순나는 두 번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Г.М.Керимов, *Шариат. Закон жизни мусульман. Ответы Шариата на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осква: Дия, 2007, С. 10.

⁴⁴ Х.Б. Мамлеев, *Как подготовить и провести занятие по теме мюридизм 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я и его реакционная роль*. Грозный, 1974. С. 14.

⁴⁵ Халид,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С. 61.

을 신뢰하지 않는다. 술탄 자신은 다른 아랍의 통치자들처럼 압제자일 뿐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 러시아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 연설을 통해 쿤타 하지는 육체적으로 아주 소진된 민중들의 사회적, 도덕적 상태와 삶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민중들의 운명을 동정하였으며,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은 완전한 과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즉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면서 강대국인 러시아에 대한 순종, 혹은 복종의 길을 선택하였다.⁴⁶ 기본적으로 그는 전쟁을 비난하였으며, 전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쟁을 불사한 무리디즘의 이념과는 대치되는 입장을 명확히 가졌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군사 항쟁의 유무에 있었다. 쿤타 하지의 결정적 가르침은 순종이라는 종교적 철학이었다.

쿤타 하지는 빈곤한 이들의 마음에 이슬람 가치를 심어주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빈한한 모습들을 추구했는데, 제자인 무리들로부터 필요한 물품들을 받지 않았다.⁴⁷ 체첸인의 영적 삶에 있어 쿤타 하지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에 대한 구전 노래가 많았다. 추종자들은 그가 천상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무슬림 제자들을 내세의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이 종결되기 이전에 모스크바로 갔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냈다. 그리고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편지를 통하거나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1859년에 샤밀은 러시아 군대에 항복했고 포로가 되었다. 당시 아랍에 있던 쿤

⁴⁶ 그러나 그의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쿤타 하지의 순종은 일종의 임계점이 존재하였다. 그가 러시아에 완전한 복종의 자세만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만약에 러시아가 여성들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산악 민족들의 언어, 관습을 강제적인 방식으로 제어한다면, 바로 그 때까지만 순종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쿤타 하지의 생각이다.

⁴⁷ 그런데, 이후의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쿤타 하지의 이러한 외양적인 행위에 대해 속임수라고 평가절하하고 이러한 모습을 취한 것은 일종의 나쁜 의도로 자행되었다는 비판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쿤타 하지의 금욕주의는 어떠한 인기를 획득하기 위한 허영심 많은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Ислам.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ание дополненное.* Москва : Наука, 1986. С. 134-135.

타 하지도 바로 카프카스로 돌아왔다.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의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⁴⁸

2. 카프카스 전쟁 이후의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

공식적으로 카프카스 전쟁은 1864년에 끝났다. 1859년은 이맘 샤밀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 해였고, 이로써 전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859년부터 1864년까지 체첸과 다게스탄을 제외한 북서 카프카스에서 저항의 움직임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 이후에도 무리디즘을 추구한 무슬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대부분의 마을에는 쿤타 하지 추종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경건하고 신비주의적인 수피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⁴⁹ 추종자들은 러시아 인들과 평화와 공존을 추구했다. 이들은 이슬람의 평화로운 교의를 설파하는 데 애썼다.⁵⁰

전쟁 이후에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은 급증하였다. 반면에 1860년대와 1870년대, 정치적 경향을 가진 무리디즘, 즉 낙쉬반디야 수피즘의 전투적 모습은 거의 약화되었다. 수천 명의 낙쉬반디야 종단에 속한 전쟁 참여자들은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북카프카스 거주민들은 오스만 제국으로 전격 이주하였다. 일부 은둔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던 잔존 낙쉬반디야 수피 종단도 짜르 비밀경찰의 활동으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있었다. 살아남은 무리드들은 카프카스 전쟁과 연관되지

⁴⁸ Халид,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С. 50.

⁴⁹ 체첸의 모든 지역은 구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종교-정치 구성체로 분할된 체제였다.

⁵⁰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투쟁을 통해 제정러시아에 맞서야 한다는 수피 그룹들도 존재했다. 그들은 지하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쿤타 하지의 추종자 중 책임자를 러시아어로 타마드(тамал)라고 언급하는데, 타마드는 신분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베킬'에 종속되어 있었고, 서로 매우 헌신적인 자세로 연결되어 있었다. 타마드는 자신의 휘하에 푸르크흐를 둔다. 푸르크흐는 책임자의 명령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않은 기타 타리카 종단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산악 지역으로 숨어 은거하였다. 일부 낙쉬반디야 그룹은 쿤타 하지의 카디리야 종단에 가입하였고 쿤타 하지 종단은 가장 큰 수피 종단으로 부상하였다.⁵¹ 다게스탄의 낙쉬반디야 그룹은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일부 낙쉬반디야 종단 후손들은 다른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수피 종단의 추종자들의 수는 186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였고 체첸의 쿤타 하지 추종자들도 6,000명 이상을 헤아렸다. 많은 이들이 여성이었다.⁵² 러시아 정부는 정부 통제 밖에 있는 수피 종단의 지역 공동체는 불인정했다.

쿤타 하지는 카프카스 전쟁이 종료된 1862년에 다시 메카를 방문하였으며, 메카에서 동방의 신비주의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만났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동방의 신비주의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사고하였으며, 지크르 등 수피즘의 인식과 신에게로 향하는 신비주의적 종교성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가졌다. 쿤타 하지의 세력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테레크 유역의 총독-사령관인 스바토폴크 미르스키는 1862년에 쿤타 하지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쿤타하지와 그 추종자들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쿤타 하지와 가족은 러시아정부의 감시 하에 있었다. 1864년 1월 3일, 쿤타 하지는 북카프카스의 새로운 총독-사령관인 로리스-멜리코프에 의해 아르군 지역에서 체포되었다.⁵³ 그는 북오세티야의 수도인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수감된 이후 노보체르카스크로 이송되었다. 특별한 감시를 받았으며, 이후 노브고로드 주로 수감되었다. 쿤타 하지는 일명 “성스러운 편지”라고 불린 편지를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남겼다. 그는 수감된 도중에 기적을 많이 베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 이후에도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졌으며, 물위로 걸어가는 신비한 체험을 쿤타 하지가 했다는 설이 있었다.⁵⁴ 체첸이 아닌 다른 곳에 수감되었기 때

⁵¹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С. 35, 42.

⁵² Galina M. Yemelianova, *Russia and Islam. A Historical Survey* (New York : Palgrave, 2002), p. 54.

⁵³ Julietta,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pp. 181-182.

문에 추종자들은 러시아정부에 석방을 청원하고 그가 체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쿤타 하지의 체포 이후 카디리야 종단도 몇 그룹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플리에보 마을에서는 후세인 하지(Huseyn Hajji), 나시르-코르트 지역에서는 하이르베그 하지(Hayrbeg Hajji), 수르코키 에서는 바탈 하지(Batal Hajji) 등이 지부를 각각 이끌었다. 바탈 하지는 원래 쿤타 하지의 추종자였지만, 1864년 쿤타 하지가 노브고로드로 유형을 떠난 이후에 독립성을 가지고 수피즘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종파를 운영하였다. 그는 결국 쿤타 하지의 종단에서 이탈하였다. 여전히 많은 수피즘 추종자들은 쿤타 하지의 전통성을 따랐으며, 그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었다. 이후 카디리야 종단은 분화 과정을 겪었으며, 고유의 지크르와 이슬람 의식 등을 행하였다. 카디리야 종단에서는 체첸 출신의 바마트 기레이 하지(Bammat Girey Hajji)가 이끄는 종파가 가장 큰 단체였다.⁵⁵ 그의 종파에는 특히 잉기쉬 민중들이 많이 참여하였다.⁵⁶ 체첸에서 수피즘은 카디리야 종단의 의식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을 완성하고 있는데, 영적, 도덕적, 신비주의적 자기완성을 획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온 쿤타 하지의 영성을 충분하게 이어오지는 못했다.⁵⁷

⁵⁴ Акаев, *Шейх Кунта-Х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С. 200.

⁵⁵ Julietta,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p. 182.

⁵⁶ 이 종파는 민중의 연합, 관습과 전통의 유지, 민족 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하였다. 잉구시 민족의 사회적, 종교적 삶에 있어 카디리야 종단은 눈에 띄는 활약을 하였다.

⁵⁷ 쿤타 하지 종파는 오늘날 체첸에서 가장 강력한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쿤타 하지의 추종자들은 자주 수피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쿤타 하지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빈곤한 자, 고아, 과부 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다. 현대 체첸 사회에서 많은 추종자들은 그의 선한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쿤타 하지의 이상을 이해하고 있다. 체첸과 잉기쉬 민족 등 바이나회 민족계에서 이슬람을 영적, 도덕적, 정신적 삶에 있어서 표본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것은 산악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아다트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샤리아와 아다트의 충돌은 18세기 후반기에서 19세기 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로 이슬람은 민족적인 모습을 띠고 발전해 나온 것도 사실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에 다게스탄에서는 체첸어로 115권이 저술이 출판되어 나왔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아랍어로 저술이 이루어졌는데, 이 체첸어 저술은 대부분 아랍어, 페르시아어로 된 종교서적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수피즘을 다룬 책과 역사책과 문학책으로 출간되었다.

쿤타 하지의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쿤타 하지를 체포했으며, 이 사건으로 추종자들과 러시아 군대 사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쿤타 하지 측은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샬리 마을에서 투마노프를 사령관으로 하고 러시아 군대에 맞섰으나, 전쟁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쿤타 하지 측은 신의 도움만 구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전쟁으로 100명 이상의 무리드가 전사하였다.⁵⁸ 쿤타 하지는 1867년에 유형 중에 사망하였는데, 이후 체첸과 잉기쉬 민족의 카디리야 종단 세력은 더 많이 확산되었다. 러시아는 북카프카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일단의 지하드를 주창하던 세력이 1877-1878년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제압당했다.⁵⁹ 카디리야 종단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통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으로 카디리야 종단에 소속된 이슬람 재판관, 이슬람 선생, 성직자들은 제정러시아의 비호 하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⁶⁰

V. 쿤타 하지 수피 교의의 확산과 그 이유

카프카스 전쟁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침략자인 러시아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이슬람 군사주의자들의 입장이 강하게 전파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상적인 무슬림의 모습으로도 수용되기도 했다. 쿤타 하지와 추종자들이 신과의 합일을 강조하는 타리카 교의에 몰두하고 공존의 길을 선택하자,

바이나흐 민족의 민족문화 형성에 있어서는 쿤타 하지의 삶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 뿐만이 아니라 수피즘 전파 운동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⁵⁸ Авксентьев,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 133.

⁵⁹ Alexandre Bennigsen, Enders S. Wimbush, *Mystics and Commissars: Sufism in the Soviet Union* (London : C. Hurst, 1985), p. 10; С. Прозоров, *Исл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оскв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8, С. 61-62.

⁶⁰ Interview with ShamyI Beno, a Naqshbandii and a Moscow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Chechnya, Moscow, 24 April 2000.

낙쉬반디야 종단 지도자들은 쿤타 하지를 부정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쿤타 하지가 고유한 이슬람 원칙들에 위배하는 사상을 설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카디리야 종단이 지크르 행위를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로 순니 종단 지도자들은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앞서 분석했듯이, 지크르는 수피즘 예배 시의 매우 중요한 영적 행위이다. 그런데 이슬람 성직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이슬람법에 위배된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쿤타 하지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슬람 정신은 순니 이슬람 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이슬람 도그마와 의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종교적 열의를 가지고 공식적인 예배를 인도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쿤타 하지는 지크르는 수피즘 타리카 교의의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예배 의식이라는 관점을 가졌다. 쿤타 하지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북카프카스의 순니 이슬람 성직자들과 사상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렇다면 쿤타 하지의 가르침은 왜 북카프카스 지역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을까?

첫째, 쿤타 하지의 교의가 일반 민중들에게 수용된 이유는 러시아의 매우 혹독한 탄압에 기인하였다. 러시아는 매우 무자비한 방식의 토벌 작전을 펼쳤다. 러시아군대는 마을을 불태웠으며, 군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숲의 관목들을 제거하고 도로를 새로 만드는 등, 전쟁에 유리한 잔인한 방식을 동원하였다.⁶¹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카프카스 주민들의 저항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강력한 진압 방식으로 카프카스 거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다. 러시아는 군대 원정을 자주 단행하였으며, 작전 도중에 거주민들을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민중들은 카프카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둘째, 성전을 선포하고 저항을 한 샤밀이 전쟁을 치르면서 보여준 행태가 일반 주민들에게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행정권, 사법권, 그리

⁶¹ Firouzen Mostashari, *On the Religious Frontier. Tsarist Russia and Islam in the Caucasus* (London, New York : I. B. Tauris, 2006), pp. 9-22.

고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도 독재적 권력을 가졌던 샤밀의 행동이 많은 민중들에게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샤밀의 존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 민중이 그로부터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샤밀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민중의 수도 급증했다. 이는 카프카스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종결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⁶² 점차로 민중들은 쿤타 하지의 가르침을 경청하기 시작했다.

셋째, 쿤타 하지의 가르침은 실제적으로 러시아인들과의 평화를 호소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전쟁 후반기에 민중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타리카 교의 자체가 무슬림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각인되었으며, 절대적인 선과 진리, 그리고 무슬림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의 책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종교적 성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쿤타 하지는 무리드는 이슬람의 모든 명령을 성스럽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리드는 다른 민족이나 부족이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의 있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상대적으로 매우 강력한 적수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타리카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공식적인 후계자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일부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경계하였다.⁶³

넷째, 당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열악했는데, 쿤타 하지의 가르침에는 사회공동체성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카디리야 종단의 교의가 확산된 측면이 있었다. 정의 실천은 과부, 고아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러한 일이었다. 이는 신

⁶² 제정러시아의 군대가 다게스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첸을 경유해야만 한다. 체첸은 다게스탄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주요 요충지인데, 체첸으로부터 식량을 봉쇄한다면, 다게스탄 거주민들은 기아에 빠질 우려가 항상 있었다. 샤밀은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카프카스 전쟁의 후반부에는 12년 동안 체첸 지역을 거주지로 삼았다. 특히 체첸의 베테노가 신정국가의 핵심 도시가 되었다.

⁶³ 실제적으로 쿤타 하지가 죽은 이후에 그의 추종자중의 일부는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양적 가르침의 기본으로 수용되었다. 쿤타 하지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토지 개간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다양한 농업 도구를 가지고 노동력을 투자해서 농사 개간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무슬림 제자도를 실천해야 하는 무리드는 농업 경작이나 가축 목축 등을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드는 봄과 가을의 농번기 때에 경작과 수확 이전에 회합하고 어떻게 하면 과부와 고아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지, 경작 과정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있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전한 무리드는 절대로 권력을 쟁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남자들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여성들을 대해야 하며, 남자들은 서로를 형제로, 여성들은 자매라고 부르면서 사랑의 공동체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⁶⁴

쿤타 하지는 사회적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체첸과 잉구시 민족의 전통성은 관습과 문화적 가치 속에 배태되어 있다. 그러한 가치는 무슬림의 신적인 인식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공동체성은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인정해야 할 알라를 수용하고 서로 간에 무슬림이라는 형제애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⁶⁴ 결혼을 할 때에 남성은 여성의 집안에 과도한 지참금을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의 가르침에는 식사와 생활 등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검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었다. 금연과 금주가 평소 지론이었다. 카프카스 전쟁 이후에 쿤타 하지 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에는 이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몫을 하였다. 쿤타 하지는 영적으로 권위자였으며, 그 권위로써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쿤타 하지에 불만을 터트리는 자들이 있었다. 씨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 내에서는 형제로 간주된다.

⁶⁵ 종교적 공동체는 형제애를 가지고 있으며, 씨족공동체인 타이프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순응한다. 만약에 씨족공동체가 혈연관계로 결속되어 있다면, 무리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스승이 속해있는 무리드 공동체의 구성원을 하나로 결합하는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쿤타 하지의 관점이었다. Л.А.Баширов,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опросы научного атеизма*, Выпуск 39, Москва, 1989, С. 48-49.

VI. 결론

본 논고는 19세기 북카프카스에서 활동한 수피즘 지도자인 쿤타 하지의 삶과 활동, 그가 참여한 카디리야 종단의 이념을 통해 친 러시아 담론으로서의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슬람의 교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2개의 수피즘 그룹이 존재했다. 하나의 그룹은 쿤타 하지 자신이 이끌고 있었으며, 추종자들은 신비주의로서의 수피즘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들은 쿤타 하지를 새로운 이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적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다. 다른 그룹은 세속적인 경향의 이슬람을 추종하였는데, 카프카스 전쟁 시기에 지하드를 선포하고 군사 항쟁을 한 이들이었다. 러시아에 저항하던 이들을 ‘나이브 무리드’라고 칭하였다. 당시 제정러시아는 카프카스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외교 전략으로 삼았으며,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북카프카스 민족의 저항 의식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본 논고는 러시아에 저항한 낙쉬반디아 수피즘의 군사적 측면이나 이념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길을 수피즘 정신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쿤타 하지의 삶을 통해 이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러시아는 18세기 이후로 북카프카스를 정복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이후 카프카스 전쟁을 벌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샤밀을 중심으로 북카프카스 민족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매우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낙쉬반디아 수피그룹은 매우 강력했으며, 지하드라는 군사주의로써 맞섰다. 지하드는 제국의 침략에 맞선 민중들의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담은 신앙의 형태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저항과는 다른 형태로 등장한 매우 유연한 이슬람 운동이 출현하였다. 강력한 제국과의 전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 쿤타 하지의 수피즘 사상은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고에서는 러시아와 화해를 주창한 사상적 가

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낙쉬반디야 수피즘에 가려있던 카디리야 수피 종단의 이념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카디리야 종단의 인식과 의식이 신을 향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향하는 모습이며, 이는 전쟁과 투쟁의 모습보다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 더 가깝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즉 수피즘의 진리추구가 사회적 공동체성의 평화와 공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관점이 피력되었다. 쿤타 하지의 사상은 끊임없는 전투로 평화의 시간을 기다리던 무슬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쿤타 하지가 평화와 공존의 입장을 가지면서, 낙쉬반디야 수피즘 종단은 매우 분노했으며, 대 러시아 군사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갔으며, 2개의 수피즘 종단은 현실적 상황을 두고 서로 대립하였다. 이맘 샤밀은 전쟁 종식 이후에 쿤타 하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쿤타 하지는 이단자는 아니며, 이슬람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구도자였음을 인정하였다.

쿤타 하지는 타리카 교의 중에서 매우 중요시했던 금욕주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경작한 빵을 주식으로 삼았으며, 자신이 직접 돌보았던 가축의 우유나 고기를 먹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의 태도와 사생활에서의 가르침의 실천, 그리고 이슬람 훈육에 있어서의 엄격함 등으로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샤밀의 권위보다 결코 적지 않은 명성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자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금욕주의를 강조한 것은 내적 확신으로서의 행동이었다. 충을 드는 것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것이 더 큰 의무라고 보았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어주었다. 쿤타 하지의 도덕적 원칙들은 휴머니즘이었다.

민중의 고통스런 시절에 쿤타 하지는 영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민중들을 도덕적인 고양함과 청결로 이끌었다. 거의 60년이나 지속된 제정러시아와의 전쟁, 특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전투로 인해 체첸과 다게스탄 지역에서의 민중들은 큰 고통 속에 있었고, 이러한 때에 그의 평화의 교의가

강력한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때에 1세기 반 이전에 활동한 쿤타 하지의 삶은 이슬람권 문화의 평화와 공존의 담론을 적절하게 제시해주는 예로 판단된다.

КСИ

참고문헌

- 김관영. “이슬람 신비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 수피즘(sufism)의 본질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20호. 2000년. 277쪽.
- 정세진. “북카프카즈 수피즘 연구 - 신비주의 관념과 반러시아적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9권 1집. 2009년 5-6쪽.

- Bennigsen, Alexandre, Wimbush S. Enders. *Mystics and Commissars: Sufism in the Soviet Union*. London : C. Hurst, 1985.
- Blanch, Lesley. *he Sabres of Paradise: Conquest and Vengeance in the Caucasus*. London : TPP, 2009.
- Gammer, Moshe. *Muslim resistance to the tsar: Shamil and the conquest of hechnia and Daghestan*. London: Frank Cass, 1994.
- Gökay, Bülent. “Russia and Chechnia: A Long History of Conflict, Resistance and Oppression.” *Alternatives : Turkish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2&3. 2004. p. 5.
- Hunter, T. Shreen. *Islam in Russia.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Security*. Armonk,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4.
- Lewin, Ahmadi Fereshteh. Development Towards Wisdom and Maturity: Sufi Conception of Self.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Vol. 5. No. 3. 2000. p. 137.
- Meskhidze, Julietta. “Shaykh Batal Hajji from Surkhokhi: towards the history of Islam in Ingushetia.” *Central Asian Survey*. Vol. 25. No. 1-2. 2006. p. 181.
- Mostashari, Firouzen. *On the Religious Frontier. Tsarist Russia and Islam in the Caucasus*. London, New York : I. B. Tauris, 2006.
- Robert, W. Schaefer.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 Caucasus from Gazabat to Jihad*. Santa Barbara, Denver, Oxford : Praeger, 2011.
- Seely, Robert. *Russo-Chechen conflict 1800-2000. A deadly embrace*. London, Portland: Frank Cass, 2001.
- Yemelianova, M. Galina. "Sufism and Politics in the North Caucasus." *Nationalities Papers*. Vol. 29. No. 4. 2001. p. 664.
- Yemelianova, M. Galina. *Russia and Islam. A Historical Survey*. New York : Palgrave, 2002.
- Zelkina, Anna. "Jihad in the name of God: Shaykh Shamil as the religious leader of the Caucasus." *Central Asian Survey*. Vol. 21. No. 3. 2002. pp. 256-257.
- Авксентьев, А. *Ислам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Ставропол. 1984.
- Адат.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Тбилиси, Москва, 2003.
- Адабуль-Марзия. *Правила достойных приличий*). сочинение шей ха Джамал утдина казимумухского *Сборник сведений о кавказских горцах (ССКГ)*. Вып. II. Тифлис. 1869.
- Агларов, М. Андий цы. Махачкала. 2002.
- Акаев, Вахит. *Шейх Кунта Наджи. жизнь и учение*. Грозный . 1994.
- Ал-Газали А.Х.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осква : Наука, 1990.
- Алексей Малащенко. *Исламские ориентир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Москва : Гендальф. 2001.
- Аликберов, А.К. *Эпоха классического ислама на Кавказе*. Москва : Восточная лит ература. 2003.

- Ахмадов Ш.Б. *Имам Мансур. Грозный* : Книга. 1991.
- Баширов, Л.А. *Мюридизм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Вопросы научного атеизма*. Выпуск 39. Москва. 1989.
- Ишполитов, А.П. *Учение зикр и его последователи в Чечне и Аргунском округе ССКГ*. Вып. II. Раздел 2. Тифлис. 1869.
- Ислам. Крат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ание дополненное. Москва : Наука. 1986.
- Казиев, Ш.М. Карпеев, И.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3.
- Керимов, Г.М. *Шариат. Закон жизни мусульман. Ответы Шариата на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осква : Диля, 2007.
- Ляховский , Александр. *Зачарованные свободой тайны кавказских войн. Информация. Анализ. Выводы*. Москва : Детективпресс, 2006.
- Мамлеев, Х.Б. *Как подготовить и провести занятие по теме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и Ингушетии и его реакционная роль*. Грозный . 1974.
- Меликишвили, Лия. *Открытые и закрытые типы культур этнических систем//*
- Ошаев, Халид. *Мюридизм в Чечне. Революция и горец*, 1930. No 9-10.
- Покровский , Н.И. *Кавказские войны и имамат Шамиля*. Москва : Росспэн, 2009.
- Прозоров, С. *Исла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й . Москва : Вос 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8.

Саламов, А.А. *Правда о святых местах в Чечено-Ингушетии. Сб. статей Чечено-Ингушеского НИИ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ЧИ АССР.* Грозный . 1964.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й . (ред. А.И.Миллер) Москва :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КСИ

Abstract

**A Study on the Peace and Coexistence of the North
Caucasus in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Life and Islamic Idea of Kunta-khadzhi**

Jung, Se jin

This article examines the peace and coexistence of the North Caucasus through the life of Kunta-khadzhi in the mid 19th century. His attitude is fundamentally heterogeneous, compared to the spirit of resistance of Imam Shamil, and the academic analysis related to Kunta-khadzhi is considered to be a barometer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the northern Caucasus region of the 19th century. This article focuses not on the military situation of Russia and the North Caucasus,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various elements of the outside world, and was focused on the life of Kunta-khadzhi and his influence on the people of North Caucasus at that time.

In the midst of the Caucasus War, Kunta-khadzhi led the Qadiriya Islamic religious order, which he opposed to the Russian military resistance to the Caucasus, choosing peace instead of war against Russia. He urged that th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Russia had no meaning, and that Muslims should explore the truth about God and walk the path of faith that God has proposed. He emphasized that recognizing the realistic power of Russia, laying down arms and going to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in Russia, and walking on the path of God with absolute truth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Muslims. Kunta-khadzhi has said that it is the right way of sufism to seek peace and coexistence, not war, under any circumstances.

During the painful times of the people, Kunta-khadzhi led the people with moral uplift and cleanliness with spiritual brotherhood. The war on Russia, which lasted almost 60 years, especially the very fierce battle, was causing great suffering for the people in Chechnya and Dagestan, and at that time his peaceful tenets could gather strong supporters. At this time, when peace and coexistence are valued, it is believed that the life of Kunta-khadzhi, who was active 150 years ago, provide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ulture of Muslim culture and adequately suggests the discourse of peace and coexistence.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the duality of sufism as a spirit of resistance and composition in Chapter 2. Chapter 3 describes the activities of Kunta-khadzhi the pro-Russian discourse, and Chapter 4 review values of the Islamic spirit and peace of the Kunta-khadzhi. Chapter 5 examines the proliferation of Kunta-khadzhi's Sufism and its reasons.

